



하다총학생회가 드리는

온라인 소통합 답변

보러가기 →





첫번째 질문



뉴스하다

Q. FT가 2학기에 진행 될수도 있나요?

Q. FT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두 학우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FT에 대해 기대를 하셨던 학우님도 있으시고 우려를

하셨던 학우님도 많이 계셨을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위기 대응 요청 사항과 학우들의 안전을

감안하여 무기한 연기하였던 FT를 최종 논의 끝에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두번째 질문

뉴스하다

Q. 굉장히 작은 기능이지만 총학생회가 매 학기 시간표를 보내주면 학우들이 에브리타임 어플을 통해 유용하게 시간표를 만들고, 조금이나마 더 편리한 학교생활을 할수있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현재 성서봇 어플이 업데이트 중에 있습니다.

앱 담당자와 소통한 결과,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학우님이 요청해주셨던 시간표 기능을 성서봇2에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꾸준히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제작 중에 있기에 추가적인 소통을 진행한 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

뉴스하다

- Q. 확진자가 발생한 여러지역에서 오는만큼
신중을 해야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국성서대학교 학우들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서
라도 개강연기는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 Q. 저희학교는 심지어 채플도있거 학교자체도
작기때문에 사람과의 접촉이 더 많은데
개강연기는 꼭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총학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하지않을까요?



세번째 질문

뉴스하다

Q. 물론 FT가 취소되었지만 개강을 하여 중국인유학생과 기숙사를 같이 쓰고 많은 인원이 모여 수업을 한다는 것은 아직 위험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많은 학우들의 의견을 들은 총학생회는 이를 학교위원회에 전달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답변

뉴스하다

많은 학우님께서 온라인 소통함에
개강 연기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이전에 학교 측과 소통하고 있었지만 여러분이 주신 의견을
가지고 학우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더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에 전체 학우의 의견을 파악하고
학교 측에 정확하고 근거 있게 의견을 전달하고자
각 학과별로 **개강 연기에 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우님들의 목소리를 모아 교학처 및 학교에 의견을 전달하고
추가 소통하도록 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는 학우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과정이며,
추가 소통 후 다시 안내해드려야 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세번째 답변

뉴스하다

기숙사의 경우, 중국인 유학생 중 현재 후베이성을 방문한 유학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교육청 지침에 따라 유학생에 대해 **개강 전 2주의 격리 기간**을 가진 후, 이상이 없을 시에만 입주 및 수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학우들의 불안이 높을 것으로 염려되어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소통할 예정입니다.

학교에 이야기하고 싶은 점이 있는 학우들께서는 온라인 소통함에 의견을 적어주시면 더욱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이는 학우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과정이며, 추가 소통 후 다시 안내해드려야 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학우님들께

뉴스하다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우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학우 여러분의 목소리가 있다면 저희는
학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매일 소통함을 확인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 건의하고 싶은 점을 비롯한
여러분의 의견을 언제든지 온라인 소통함에
말씀해주세요!

더욱 열심히 움직이는 하다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매일 매일 온라인 소통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온라인 소통함을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의견이 있으시다면
온라인 소통함을
찾아주세요.

하다총학생회 언론홍보부